

창업기업의 혁신전략 및 혁신문화가 기업 역량을 통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병선*·서영욱**

I. 서론

우리나라 경제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을 사이에 두고 3국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로 2.6%이었으며, 2016년 또한 별다른 변화 없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한국은행 3.2%, 정부 3.1%, 한국개발연구원 3.0% 정도로 추산하였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성장률 저하로 저성장 고착화 위기에 직면하여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핵심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조덕희, 2016).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은 자원 기반에서 지식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혁신성과 유연성을 특성으로 가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창업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창업기업의 창업활동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창업활동은 많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 속에서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중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창업보육제도가 있으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업보육제도는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에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7항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학·연구원·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사업장,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 3년 이내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생산 인프라 제공, 기술·경영지도, 자금조달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많은 창업기업들은 판로개척, 기술사업화, 자금조달, 마케팅 및 창업분야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초기 창업자 같은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벤처붐이 일던 2000년대부터 창업문화 확산을 위하여 창업교육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으로 많은 창업기업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창업기업들은 기업경영에 대한 사전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창업현장에서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많은 창업가와 창업기업 연구자들은 창업기업의 혁신성, 역동성, 기술성을 창업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성공창업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 재무성과의 선행 변수로 이들 핵심역량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기업의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통해서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윤병선,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042-933-7181, sun33@cnu.ac.kr

** 서영욱,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교신저자, ywseo@dju.kr

II. 선행연구

1. 창업과 창업기업

창업이란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영환경 하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창업에 대하여 Timmons(1994)는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경영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Vesper(1983)는 인적·물적 자원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사업 아이템과 경영자원을 결합하여 사업의 기초를 만드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였다.

창업기업은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기업(Cooper, 1977) 또는 신기술·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수익 및 성장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Carland et al., 1984)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술기반창업기업(Technology based Start-up)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위험이 따르는 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기업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벤처기업이란 용어로 알려져 있다(박성주, 2010). 벤처기업은 종업원의 수, 총자산, 자본금, 매출액 등과 같은 양적 기준이나 제품의 수명주기, 기업경영의 동기 등과 같은 질적 기준으로 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존기업과는 달리 높은 기술성, 모험성, 개척정신을 함유하는 독립된 기업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특정 산업분야의 태동단계에서 제품혁신을 주도하며 개량형 이나 모방형의 기술혁신보다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시도하고 주요 기술변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기환, 2005). 기술창업기업, 벤처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집약적 중소기업, 신생기술기반 중소기업 등은 유사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으며, 고위험·고수익 사업, 기술집약적 사업, 고도의 기술이나 신기술에 바탕을 둔 사업, 새로운 잠재 시장 또는 신규시장에 진출하는 사업, 기업가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권미영, 2010). 그러나 각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창업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혁신적인 전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창업기업 역동적인 역량과 기술적인 역량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혁신전략과 혁신문화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 다양한 반응시스템인 관리회계정보시스템, 경영통제시스템 등을 갖추고 대응한다(이창대, 2011). Damanpour(1991)는 경영혁신에 대하여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한 기회와 위협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능과 기업 내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조직체질을 유지하며 초일류기업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발상, 방법, 시스템을 채택하여 전사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혁신전략을 기획할 수 있는 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최고 경영자인 CEO에 의해 구동되고 있다(Hudson, 2011). O'Regan(2005)는 일반적인 문화는 혁신문화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흔한 장애중 하나이며 중소기업은 일반적 특징인 유연한 혁신문화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저항이 낮고, 위험이 적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 조직 내부에서 다양한 문화적 특성들 중 혁신적이거나 개방적인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로 조직 문화가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이는 구성원들의 행동과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상현, 2012).

3. 역동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창업기업의 특성 중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과창출이 가능한 역동적인 역량과 기술적인 역량이 있다. 창업기업의 통합 학습능력, 조직을 재구성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역량을 스타트업의 역동적 역량이라고 하였다(Wu, 2007). 창업기업의 역동적인 역량 및 시스템 통합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이며 내부 및 외부 자원과 역량을 재구성하는 능력으로 창업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Teece et al., 1997). 창업기업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초기에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여 회사 인프라 통합, 자원 재구성, 임직원의 학습, 환경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Wu(2007)은 창업기업의 내부 및 외부 인프라에 대하여 결합, 연계, 변형, 재할당의 자원이 풍부할 때 스타트업의 통합과 재구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Burgelman et al(1997)는 기술역량에 대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의 창출과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 기반으로 기술역량을 제품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제반 기술능력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 및 상용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역량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병헌 등(2008)은 기술역량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자원의 보유 정도로 정의하면서 전문기술인력과 지식재산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2004년부터 2015년 까지 약 11년에 걸쳐 기술보증을 지원했던 32,000여개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기수인력, 기술조직, 지식재산권, 무형자산, 지식재산, R&D 투자 등 6개 대표 지표를 선정하여 기술역량지수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4. 창업기업 성과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서 성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의 경영활동 수행에 대한 결과 지표이다. 창업기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척도인 경영성과는 비교대상 기업과 경쟁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이다(Son & Kim, 2007; Lee, 2011). 이길원(2015)은 경영성과는 기업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이익달성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을 한다. 따라서 경영성과의 측정방법은 경영성과를 수치화한 결산자료인 재무제표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재무지표인 매출과 이익이 단기적이고 과거 지향적이어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기업 가치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 재무지표를 포함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이창대, 2011). 창업기업의 경영성과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재무지표(Financial Indicator)는 재무결산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 매출액성장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투자이익률 등이 있으며, 재무지표가 기업의 성과측정지표로 선호되는 이유는 개념이 익숙하고 이해가 비교적 쉬우며 다소 적은 비용으로 자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길원, 2015).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대표적으로 시장점유율, 매출액, 순이익 등이 있으며 최근 재무제표에 의한 정확한 기업의 재무성과를 제시해 주기가 어려울 경우에 경영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재무성과 측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이길원, 2015). 기업에서 활용하는 비 재무적 성과지표에는 고객만족도, 브랜드 인지도 등을 들 수가 있으며, O'Regan & Ghobadian(2005)는 내부 및 외부지향성, 제품디자인 및 홍보, 가격경쟁력 등 비 재무지표를 이용하였다. 재무지표는 경영성과 측정의 일반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창업초기 기업이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재무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황경연(2006)은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금융성과지표와 시장성과 지표를 대용지표로 선정하고 각 지표에 대해 경영자의 주관적 중요도와 만족도를 반영하여 경영성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기업의 성과 측정지표로 순이익과 성장성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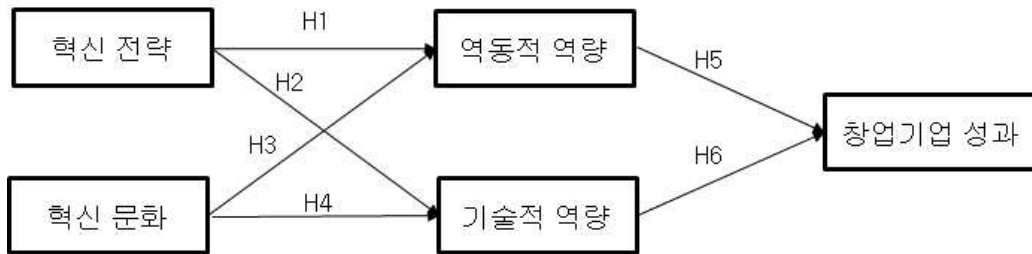
III. 연구모형, 연구방법 및 분석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II. 선행 연구’ 부문에서 창업과 창업기업, 혁신성, 기업의 역동적 및 기술적 역량, 창업기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혁신성과 역동적 및 기술적 역량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창업기업의 혁신 전략, 혁신 문화, 역동적 역량, 기술적 역량 구성개념들과 창업기업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창업기업을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거나 새로운 기술 또는 지식의 활용에 중점을 두는 기업 (Cooper, 1977) 또는 신기술·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수익 및 성장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 (Carland et al., 1984) 등으로 정의되어진다. 일반적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많은 위험이 따르는 반면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벤처기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기업에서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창업기업의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창업기업의 혁신전략은 역동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창업기업의 혁신전략은 기술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창업기업의 혁신문화는 역동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창업기업의 혁신문화는 기술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창업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각각 기업의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창업기업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 창업기업의 역동적 역량은 창업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창업기업의 기술적 역량은 창업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1)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업력 10년 이하의 창업기업의 CEO 및 핵심 인력들을 대상으로 혁신전략, 혁신문화, 역동적 역량, 기술적 역량, 성과 변수들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들은 리커트 7점 형식의 다항목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7점은 매우 그렇다).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은 기존 문헌연구(Terziovski, 2010; Wu, 2007 ; Hopp & Stephan, 2012)를 통해서 이미 타당성 및 신뢰도가 입증된 것들을 사용하였다.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문응답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설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 창업 기업에 종사하면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응답자인지 여부를 체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3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총 203명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76	86.7
	여	27	13.3
응답자학력	고졸	7	3.4
	초대졸	13	6.4
	대졸	98	48.3
	석사	58	28.6
	박사	26	12.8
	기타	1	0.5
응답자 연령	30세미만	24	11.8
	30세~39세	57	28.1
	40세~49세	77	37.9
	50세~59세	34	16.7
	60세 이상	11	5.4
창업기업 사업분야	기계	35	17.2
	전기/전자	35	17.2
	정보통신	55	27.1
	화학	14	6.9
	바이오	4	2.0
	소재	7	3.4
	기타	53	26.1
합계		203	100

2) 연구가설 검증

혁신적 전략 및 문화가 역동적, 기술적 역량을 통해 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제시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LS(Partial Least Square)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SmartPLS 2.0을 사용하였다. PLS는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에 의해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 잔차분포에 대한 요구 사항이 비교적 덜 엄격하고(Chin, 1998), 이론적인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와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법이다(Wold, 1982). 본 연구의 경우, 모델의 적합성을 중요시하는 다른 구조방정식 분석 방법보다 원인-예측(causal-prediction)에 중심을 둔 PLS를 통한 분석이 보다 타당하다(Chin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측정하는 설문 항목들이 연구의 의도와 동일하게 측정되었는지를 분

석하기 위해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은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구하여 검증하였으며, 타당성 분석은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사용된 변수 및 측정문항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 AVE)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변수들의 신뢰도는 Hair et al.(1998)이 제안하고 있는 Cronbach's α 값 0.7 이상의 값인 0.700에서 0.903을 나타내므로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 개념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 적재치값을 계산하였다. <표 2>의 요인 적재치 값에서 볼 수 있듯이 모두 0.7이상으로 측정 변수들이 구성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변수에 대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복합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이 Fornell & Larcker(1981)가 제안하고 있는 임계치 0.7이상과 0.5이상을 모두 만족하고 있어(복합신뢰도: 0.847~0.941, AVE: 0.713~ 0.889)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요인의 AVE제곱근 값이 다른 요인들과의 구성개념 상관관계 계수의 값들보다 높은 값을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성 역시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에 본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가설1부터 가설6까지 모든 가설들이 유의하게 지지되었다. 경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동적 역량에 대한 설명력은 23.5%, 기술적 역량에 대한 설명력은 58.5%, 창업기업 성과에 대한 설명력은 24.2%를 보이고 있어 Falk & Miller(1992)가 제시한 적절한 검정력(power) 10%를 모두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창업기업들의 혁신 전략 및 혁신 문화의 정도는 역동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 각각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창업기업들의 역동적 역량 및 기술적 역량은 각각 창업기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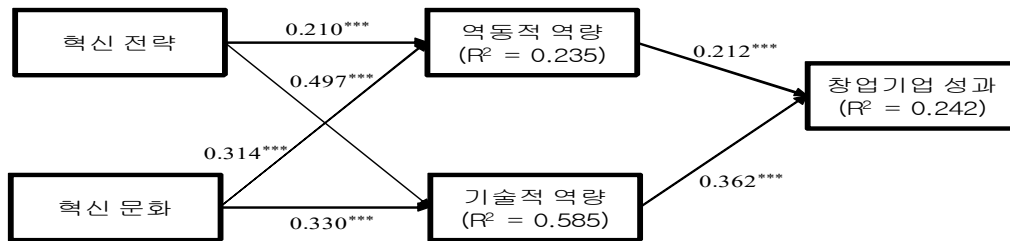
<표 2> 신뢰성 및 수렴타당성 검토

측정개념	항목명	요인 적재치	Cronbach's α	복합신뢰도	평균분산 추출값
혁신전략	IS1	0.818	0.900	0.925	0.713
	IS2	0.862			
	IS3	0.848			
	IS4	0.851			
	IS5	0.842			
혁신문화	IC1	0.812	0.903	0.928	0.720
	IC2	0.857			
	IC3	0.853			
	IC4	0.891			
	IC5	0.829			
역동적 역량	DC1	0.938	0.876	0.941	0.889
	DC2	0.948			
기술적 역량	TA1	0.842	0.834	0.900	0.751
	TA2	0.853			
	TA3	0.904			
창업기업 성과	SP1	0.741	0.700	0.847	0.738
	SP2	0.962			

<표 3> 판별타당성 검토

측정개념	혁신전략	혁신문화	역동적 역량	기술적 역량	창업기업 성과
혁신전략	0.844				
혁신문화	0.697	0.849			
역동적 역량	0.429	0.461	0.943		
기술적 역량	0.727	0.676	0.436	0.867	
창업기업성과	0.346	0.368	0.369	0.454	0.859

* 상관관계의 대각선 요소는 AVE의 제곱근 값임. 판별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대각선 요소가 비대각 영역 값들에 비해 반드시 커야함.



주) *p<0.05, **p<0.01, ***p<0.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 결과

IV. 결론

1. 토의 및 시사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적 현상과 관련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 창업을 통한 양질의 창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하여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정부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이 지역민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 낯설고 관련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시도하기 어렵고, 창업기업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결과에 대해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창업기업들이 창업에 성공하고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기업 구성원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은 창업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 창출 및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창업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창업활동에 임하고, 도전 정신을 통해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효과적인 제도 및 프로그램으로써 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에 대하여 창업기업들과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관심과 실천적 이행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노력하는 혁신전략과 혁신문화 역할은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이전시켜 주고, 도전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성공창업에 대한 의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창업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창업기업의 혁신전략과 혁신문화가 창업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보다 전문성과 적극성을 보유한 기업의 역동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였을 때 성공창업에 대한 의지가 발현되므로 창업기업의 역량 확보 강화에 최대한 노력하여 한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창업기업 성과의 선행변수로 혁신 전략, 혁신 문화, 역동적 역량, 기술적 역량 이외에 창업기업을 고려한 여러 환경요소를 다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업 자원, 협력관계에 있는 외부 파트너사와의 협력, 활용과 탐색 등 여러 가지 창업 경영활동 변수들과 창업기업 성과와 관련한 선행변수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실증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미영 (2010), “기업가 특성, 기술능력 및 네트워크 특성이 기술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현, 박현선 (2012), “조직의 태블릿 PC 이용 및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필요성 요인과 조직혁신문화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21(4), 81-108.
- 박성주, (2010), “기술기반창업기업의 기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호, 김경환 (2007), “핵심역량과 경쟁전략 간의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텔산업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6(5), 93-111.
- 이기환, 윤병섭 (2005), “특허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 대일반기업”,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정책자료 제8호.
- 이길원, 박현숙 (2015), “창업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속성이 차별화 중심형 경쟁우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1), 69-82.
- 이병현, 김영근, 박상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과 기술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연구, 16(1), 23-46
- 이창대 (2011), “경영전략, 조직문화, 경영혁신유형간의 관련성과 인과관계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4(6), 3441-3460.
- 조덕희 (2016), 중소기업 9988 의미의 재해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황경연 (2006), “벤처기업의 조직 및 경쟁특성이 e-비즈니스 활용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6(1), 161-184.
- Burgelman, M. Engelhardt, F. Guillemoles, J. F. Herberholz, R. Igalson, M. Klenk, R. Lampert, M. Meyer, T. Nadenau, V. Niemegeers, A. Parisi, J. Rau, U. Schock, H. W. Schmitt, M. Seifert, O. Walter, T. Zott, S.(1997), “Defects in Cu(In, Ga) Se₂ semiconductors and their role in the device performance of thin-film solar cells”, *Progress in photovoltaics*, 5(2), 121-130
- Carland, J. W., Hoy, E., Boulton, W. R., and J. C. Carland (1984).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from small business owner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9(2), 354-359.
- Chin, W. W. (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oper, A. G., A.Bruno, (1977), “Success among High-Technology Firms”, *BusinessHorizons*, 20(2), 16-22.
- Damanpour, F.(1991), “Innovation effectiveness, adop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M. A. West, & J. L. Farr(Eds.), *Innovation and Creativity at Work: Psychological and Organizational Strateg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Falk, R.F. and Miller N.B. (1992), “A premier for soft modeling”. Akron, Ohio, The University

- of Akron.
- Fornell, C. and Larcker, D.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1.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and Black W. C.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4thed. PrenticeHall.
- Hopp, C., and Stephan, U. (2012).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environments on the performance of nascent entrepreneurs: Community culture, motivation, self-efficacy and start-up succes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4(9-10), 917-945.
- Hudson MA, Smart A, Bourne M.(2001), "Theory and practice in SME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s".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21(8): 1096-1115.
- O'Regan N, Ghobadian A, Gallear G.(2005), "In search of the drivers of high growth in manufacturing SMEs". *Technovation*, 26(1), 30-41.
- Teece, D., Pisano, G. and Shuen A.(1997), "Dynamic capabilities and strategic management", *Strat Manage J*, 18(7), 509-533.
- Terziovski, M. (2010). "Innovation practice and its performance implication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 resource-based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1(8), 892-902.
- Timmons, J.(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4th Edition, Boston, Mcgraw-Hill.
- Vesper, K. H.(1983), "Three Fac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 Pilot Study",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 Wold, H. (1982), "Soft Modeling : the Basic Design and Some Extensions, in System Under Indirect Observations: Part 2". K.G. Joreskog and H. Wold. AmsterdamNorth-Holland.
- Wu, L. Y.(2007), "Entrepreneurial resources, dynamic capabilities and start-up performance of Taiwan's high-tech firm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 549-555.